

간호사의 자긍심 '휘장 달기' 캠페인

문경제일병원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병원"

신입간호사 교육 프리셉터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문경제일병원 간호본부(본부장·박선신)가 휘장 캠페인에 2003년부터...

문경제일병원 간호본부(본부장·박선신)가 휘장 캠페인에 2003년부터...

첨단 의료기기를 갖춘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과 직원들이 환자 중심의...

고대 안암병원 '환자안전 챔피언상' 수여

고대 안암병원(병원장·이기형)은 '환자안전 챔피언상'을 신설하고, 첫 번째 수상자로...



중요한 근접요류를 보고하거나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해...

현대유비스병원 신입간호사 해외연수

현대유비스병원(병원장·이성호, 간호부장·박민애)은 신입간호사 해외연수를 7월 5~9일...



현대유비스병원은 매년 일본, 미국, 독일 등으로 의료진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힐링투어 경희의료원 간호본부

경희의료원 간호본부(본부장·유재선)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힐링투어를 7월 1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간호본부 내 모든 직종을 대표하는 대표자 4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남산둘레길을 걷고 식사를 하는 등 서로 어울리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선 간호본부장은 "이번 힐링투어를 통해 벽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독자주소 변경 02) 2260-2571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관리자 워크숍

세브란스병원 간호국(간호담당부원장·오경환)은 'The Historical call for the Nursing profession' 주제로 간호국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병석 병원장과 간호국 외 타부서의 간호관리자들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1906년 세브란스 간호원양성학교 설립으로 시작된 세브란스병원 간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재를...

이병석 병원장은 "133년, 세브란스병원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 사명을 되짚고 시대적 요청에 따른 현재의 간호를 규명하는 뜻깊은 작업을 추진한 간호국의 열정에 지지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오경환 간호담당부원장은 "한국 간호의 리더로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관리자들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송고한 선진들의 정신을 계승해 함께 정진해나가자"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에스포항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김문철, 간호부장·최숙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에스포항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전문병원이며, 의료기관인증병원이다. 올해 1월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다.

김문철 병원장은 "지방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고, 신경외과 뇌혈관전문병원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질 높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에스포항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가대 성빈센트병원 개원 50주년 간호주간 행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간호부(부장·이옥경)는 개원 50주년을 맞아 간호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성빈센트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개원 5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간호부의 역사를 함께 돌아봤다.

2017 나이팅게일에 김정선 간호사가 선정됐다.

임상현장 간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호부 일일카페'를 열었다.

'제22회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논문을 5개 부서에...

최수정 기자 sjchoi@

넬스라이프, 신규간호사 역량강화 교육

긍정의 힘으로 소진 예방 ... 존중하는 조직문화 중요



대한간호협회 넬스라이프는 신규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을 경남, 충남, 대구, 부산에서 실시했다. (사진 위 맨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규간호사들이 긍정적 사고, 소진예방, 의사소통 등의 역량을 강화시켜 간호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규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을 네 차례 실시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에게 회원복지혜택 차원의 무료교육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팀 넬스라이프와 경남간호사회, 충남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교육에는 1~3년차 간호사 총 4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 '간호사의 긍정강화' 주제로 강연한 박연정 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는 "긍정적인 상태는 싫고 불편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겨내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스트레스 상황을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경험담 가운데 긍정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라"면서 "긍정의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드는 것이므로 막연한 불안과 집단성에 휘둘러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집중해 간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고,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Burn-out 예방과 자기돌봄' 주제로 강연한 이경주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환자를 돌보려면 간호사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므로 소진을 예방하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조직차원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완벽주의를 지양하며, 개인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키워 자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현장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주제로 강연한 이명혜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장은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감, 경청, 정중하고 바른 언어표현, 긍정적인 표현 등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이 불만을 호소할 때는 '긍정해'(긍정적인 반응·정중한 사과·해결방법 제시)를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간호사 간에 서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친절하고 공손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면서 "내가

바로 간호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스로 강해지는 힘! 셀프리더십' 주제로 강연한 민현기 로젠타 교육연구소장은 "셀프리더십을 갖고 프로답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면서 "프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와 성과를 내는 사람이며, 환자 및 동료들에게 공감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처음의 다짐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주혜진 기자 hjoo@

한국콜마가 만든 마스크팩

한국콜마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마스크팩이 탄생합니다. 마스크팩 전문회사 콜마스크로 시작합니다.

